

CJ푸드빌 '더플레이스', 특화 전략 주효... '핫플' 자리매김

상권별 특성 반영 특화매장 선별
영등포타임스퀘어점 문전성시
특화 메뉴, 와인라운지 등 인기

여의도 IFC점, 좌석 규모 넓혀
평일 직장인·주말 외식수요 공략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더플레이스'가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매장을 늘리며 브랜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권은 도심권, 역세권, 대학가, 아파트단지, 주택지 등 5가지로 분류되며 그 외에 쇼핑센터나 전문상가가 밀집한 곳에 위치한 특화형 상권이 있다. CJ푸드빌의 더플레이스는 주로 특화형 상권에 위치해 있다.

9일 <메트로경제>가 취재한 것을 종합해보면, CJ푸드빌은 소비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집객 시설이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더플레이스의 상권별 전략을 다르게 펼쳐 수익성을 개선했다.

먼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플레이스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은 연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고객이 대거 몰리면서 주말 평균 100팀 이상이 대기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는 대기번호가 600번을 넘어서기도 했다.

타임스퀘어점의 경우 '이곳'에서만



더플레이스 영등포 타임스퀘어점.

/CJ푸드빌

만날 수 있는 고객 경험에 집중했다. 더플레이스는 지난해 4월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을 스테이크&와인 강화매장으로 리뉴얼 오픈했다. 리뉴얼 오픈 전후 8개월간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약 63%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연말 모임이 집중된 지난해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약 146% 늘어났다. 주말 예약률도 리뉴얼 전보다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스퀘어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화 스테이크는 고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최근 대부분의 매장으로 도입을 확산했다. 안심과 채끝 부위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티본 스테이크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와 채끝 스테이크, 문어, 랍스터를 함께 제공

하는 '비스테카&랍스터'다. 이 매장은 프리미엄 스테이크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테스트 베드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매장 입구에는 와인 라운지를 마련해 기존 매장과 차별화를 꾀했다. 스테이크, 피자&파스타, 안티파스티(이탈리안 에피타이저) 등 메뉴와 어울리는 와인을 세션별로 분리했으며, 소믈리에 직원이 와인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함께 와인을 추천한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으로 특화매장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CJ푸드빌은 홍대, 여의도 등 주요 상권으로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 IFC점'은 기존 매장 대비 약 70% 이상 좌석 규모를 늘려 확장 리뉴얼했다. 평일 직장인과 주말 특별

외식 수요를 감안해 고급스러운 맛과 분위기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파인 캐주얼 다이닝 콘셉트로 포지셔닝했다. 평일 런치 1인 스테이크부터 라이브 피자 화덕, 와인바 등 특화 요소를 더했다. 리뉴얼 오픈 후 전년 동기 대비 약 246% 늘어난 매출을 기록 중이다.

또 하나의 주요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지역은 이례적으로 호텔 내 입점한 '홍대L7점'을 운영 중이다. 고층부에서 일몰과 야경 등 스카이를 만끽하며 분위기 있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국내외 관광객, 연인, 비즈니스 모임 방문객 등 다양한 고객층을 고려해 한정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며, 저녁 시간대는 주류를 즐기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투숙객들을 위해 시그니처 메뉴 '리코타 프루타 샐러드'를 비롯 전문 셰프의 역량과 브랜드 개성이 담긴 조식 뷔페도 운영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더플레이스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수준의 다양한 이탈리아 메뉴를 세련된 공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인기 브랜드"라며 "브랜드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해 상권 특성에 따른 질적 고급화에 집중, 더욱 다양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관장

동인비 설 특별 패키지 선봬

정관장의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동인비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동인비의 대표 제품들로 구성된 새해 기념 특별 패키지를 24일까지 선보인다.



대표적인 '1899 시그니처 오일(사진)'의 새해 특별 패키지에는 '1899 싱글에센스 70ml'가 함께 구성돼 선물의 품격을 더욱 높였을 뿐 아니라 깊어지는 피부고민까지 정성스런 케어가 가능한 설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899 시그니처 오일은 31가지의 정교한 공정으로 완성된 동인비만의 '얼티밋퓨어' 기술로 정관장 홍삼을 추출한 고순도 프리미엄 홍삼오일이다. 피부에 유용한 21종의 '지방산(RG-FA)'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 줄 뿐 아니라 피부심층 탄력, 심층 치밀도, 항산화 개선 등 심층 안티에이징 효능이 있다. 피부장벽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듀얼 안티에이징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동아제약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젤리

동아제약은 비타민C 전문 브랜드 비타그란이 건강기능식품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젤리'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젤리는 한 파우치 안에 비타민C, E, 아연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함유해 항산화 및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오렌지, 포도 두 가지 맛으로 구성했으며 파우치 패키징으로 휴대 및 보관이 간편해 복용편의성을 더했다.

비타그란 비타민C 구미젤리는 동아제약 온라인 공식몰인 디몰(:Dmall)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15개 파우치가 동봉된 박스 단위로 구매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허브마리 1848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 출시

애경산업의 제주산 내추럴 허브에센스를 담은 초고농축 섬유유연제 브랜드 '허브마리 1848' (HERBMARY1848)에서 온 가족의 류에 사용할 수 있는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 센서티브'를 출시했다. 허브마리1848 드라이시트 센서티브는 건조기 사용 시 섬유 보호는 물론 기분 좋은 향을 전달해주는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의류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 26종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온 가족의류뿐 아니라 수건, 침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허브마리1848 드라이시트 센서티브는 제주산 내추럴 허브에센스를 함유해 건조 후에도 풍부한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조기 사용 후 섬유에 잔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트 1장당 액물을 고무도포해 각 시트마다 동일한 향기와 유연력을 유지해주며, 정전기 방지 효과를 더해 정전기를 감소시키고 옷감을 부드럽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세경 기자

SK바사 대상포진 백신, 동남아 진출 박차

말레이시아 품목 허가 획득
해외 신시장 공략 가속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사진)'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대상포진 백신인 '스카이조스터'에 대해 말레이시아 국가약품관리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스카이조스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건 2020년 5월 태국에 이어 두 번째다.

말레이시아는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15%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



는 등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대표적인 고연령층 질환인 대상포진 예방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는 복지부(MOU)에 약 324억 링깃(약 9조5482억원) 규모의 국가 방역 예산을 할당하는 등 복지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스카이조스터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대상포진 백신으로, 지난 2017년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스카이조스터 임상 3상에서 건강한 50세 이상 성인 824명을 등록해 면역원성을 평가한 결과,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역가가 접종 전 대비 2.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백신(MSD 조스타박스)과 세포 매개 면역반응도 동등했다.

안전성 평가 결과 스카이조스터 접종 후 6주간 발생했던 이상반응 발현

율이 대조백신군과 유사했으며, 접종 후 26주 동안 접종과 연관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시판 후 4년간 651명을 대상으로 한 스카이조스터 시판 후 조사 결과 중대한 이상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스카이조스터는 우수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IMS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스카이조스터의 시장 점유율은 56%(도즈 수 기준)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내 스카이조스터의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를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신시장에 대한 스카이조스터의 허가 등록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급증... "고령층 고관절 골절 주의"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작은 충격에도 위험 커"

한파와 대설 특보가 잦은 추운 겨울,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고관절은 실금이 생기더라도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들은 꼭 의료가 관을 방문해 검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빙판길에서 넘어질 경우, 손목, 허리, 고관절이 가장 흔하게 부러지



는데 이 가운데 허리와 고관절 골절이 환자의 거동을 크게 제한해 2차적 문제를 일으킨다. 고관절 주변 골절은 체중이 직접적으로 실리는 대퇴 경부 골절이나 전자간 골절이 가장 흔하고, 이 환자들은 다친 이후에 꼼짝도 하기 힘들어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오는 사례가 많다.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박장원

교수(사진)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고령환자는 빙판길에서 가벼운 충격을 받아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고관절 골절 시 다수가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나 금속정을 삽입하는 골절 고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지병이 많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가관에서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박장원 교수는 "최근 90대 심지어 100세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술

적 치료를 하고 있으며, 수술 결과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므로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119나 구급차를 통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밤에는 얼어붙은 바닥이 잘 보이지 않고 차도나 골목길에서는 시야가 제한돼 사고 위험이 높다. 하지만 꼭 외부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 특히 화장실을 오갈 때도 많이 넘어지기에 노인이 거주하는 공간의 화장실 환경이 미끄럽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세경 기자